

배포 일시	2023. 1. 4.(수)			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석기 (044-201-3646)
	국토정책과 균형발전지원팀	담당자	팀 장 사무관 주무관	정승수 (044-201-4733) 신용화 (044-201-3651) 오요셉 (044-201-4952)
보도일시	2023년 1월 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4.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각 「지역균형발전포럼」 발족

- 원 장관, 균형발전은 나눠먹기식 아닌 '권역별 원팀' 전략으로 -

- 국토·교통과 함께, 교육·문화·산업·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
  -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행력있는 종합적 방안 모색
  - 균형발전지원단과 균형발전포럼의 양대 체제로 정책 구체화 추진
- 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「지역균형발전포럼」을 출범한다고 밝혔다.
    -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·도시, 교통·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, 문화, 산업, 일자리,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,
    -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.
  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4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「지역균형 발전포럼」 킥오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,
    -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이 지역(지자체), 전문가, 공공(연구)기 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 가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 획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.

## 【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체화 추진체계 】

-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, 민간 전문가,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·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,
  -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(Bottom-Up)해 나가는 「지역균형발전지원단(1차관 단장)」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.
  -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하여 「지역협의회」를 개최하여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
    - \* '22.8월부터 운영하여 광역시·도를 방문·개최하고 있으며, 향후 주요 기초지자체로 확대 운영 계획
  -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「균형발전기획단」을 운영\*하고 있다.
    - \* 지역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지역의견 및 현안들에 대해 기획단에서 사안별 검토·논의 및 대안 구체화 진행중
-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더불어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·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.
  -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수시로 개최하며,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·연계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포럼(장관 주재) - 지역균형발전지원단(단장 1차관) - 지역협의회(의장 국토도시실장)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면서,
  -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사안들을 지속 발굴·해결(지원단 중심)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(포럼 중심)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

## 【 2023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】

- 국토교통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내용 중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을 포럼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“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”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,
  - 이를 위해 ①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, ②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, ③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.

### 【 2023년 국토부 균형발전 업무계획 주요내용 】

- ① (규제완화 & 성장 인프라 확충) ▶ GB 규제 개선, ▶ 도시계획체계 개편 등
- ② (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) ▶ 도심융합특구, 국가산업단지 조성, ▶ 혁신 도시·행복도시·새만금 고도화, ▶ 공공기관 2차 이전, ▶ 일자리·지역정착 거점 조성 등
- ③ (지역 교통망 확충) ▶ 지역 철도망·도로망 확충, ▶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

- 자유토론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 발제 내용 및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띤 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, 행·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” 면서,
  - “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,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·교통·지역발전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” 고 하였다.
  - 또한 “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,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힐 예정이다.

□ **추진배경**

-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소통 및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강화를 위해 '균형발전지원단\*'을 설치하였으나('19.1), 국토부 역량 활용에 한계

\* 근거 :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시행령 제31조제2항('18.9.개정)

- ☞ 균형발전지원단이 H/W와 S/W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가 되도록 개편 필요

□ **균형발전지원단 개편**

- 단장을 국토정책관 → 1차관으로 격상하여 균형발전 위상 강화
- 14개 광역 부지사로 구성된 '지역협의회'를 신설하여 상시 소통
- 우리부 내 지역 건의를 상시 검토하는 '지역균형발전기획단' 신설
  - 부내TF : 국토정책과 총괄, 실·국 총괄부서 상시, 사업부서 수시참여
  - 지역협력관 : 우리부-지자체 파견교류 인사를 협력관으로 임명
  - 지방조직 : 국토청 지역협력국 및 국토사무소를 일선기구로 활용
- 국토研 등 전문가 자문그룹, LH 등 공공기관 자문그룹 신설

< 국토부 균형발전지원단 구성(안) >

